붓다로드 순례 대장정은 '환희심' 그 자체…

사진으로 본 인도순례 43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길을 나서면 우리는 안온한 안식처를 벗어나 탁 트인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길을 떠난다. 태어나 살고 죽는 모든 여정이 바로 '길'이다. 그 일부나마 부처님이 거쳐 간 길을 함께해보는 것은 다시없을 경험이다. 안온한 집에서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건네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법회가 진행되는 조계사로 가는 마음이 그러했다.

고불법회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동거동락한 학우의 인도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대불련 법우들부터 스님을 보내는 신도들의 아련한 마음까지 모두 전해졌다.

멀리 양산에서 새벽 법회 법문을 위해 올라오신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부터 전날부터 자리를 깔고 준비한 불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순례단은 각오를 다시 다졌다.

인도까지 비행시간만 8시간 30분. 비행기는 중국 영공을 통과해 티베트 고원을 넘어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구름 위로 머리를 내민 에베레스트를 우측에 끼고 인도 상공에 진입하자 기내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순례단의 앞에 부처님 광명이 비추는 듯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순례단이 묵을 텐트를 정비하고 있다.



갠지스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순례단 스님의 모습.



2월 10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녹야원을 참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법문이 있었다.



순례단이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에 행선 도중 받은 꽃과 준비한 지화 등을 공양 올린다.



2월 20일 저녁예불에는 1천여 인도주민들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담은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린 순례단이 순례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앞에서 발원하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인도순례단이 저녁예불을 올리고 있다.